

셔츠와 넥타이의 톤 인 톤 배색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조화감 평가

임지영[†] · 강경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1. 서론

최근 남성복 시장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성 소비자의 변화된 패션의식에 맞추어 남성복 시장은 점차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패션의 감성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성정장의 개념이 확대되어 포멀정장뿐만 아니라 캐주얼 정장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남성복이 캐주얼 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복이 캐주얼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넥타이를 통한 자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표현은 의복과의 배색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 남성복을 코디할 때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아 주로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 즉 2색의 배색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되므로 셔츠와 타이의 배색 조화감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성복의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빨강, 파랑의 2가지 셔츠색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타이색을 4가지 톤으로 변화를 주어 각각 조합시킨 48개의 톤 인 톤 배색을 남녀 대학생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인 느낌을 수량화 과정을 통해 객관화시켜 색상과 톤에 의한 조화판단에서 조화영역과 부조화영역을 밝힘으로서 남성복의 코디를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배색조화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방법

본 실험은 셔츠색 2(빨강, 파랑)×타이색 6(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톤 4(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지각자성별 2(남, 여)의 4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넥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반신 사진으로 CAD system(4D-box Hi-Pmt Program)을 이용하여 작업한 48개의 컬러 출력물이었다.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은 선행연구¹⁾에서 사용한 색상을 참고로 셔츠색 2가지 빨강, 파랑과 타이색 6가

[†] 교신저자 cloth1012@hanmail.net

1)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 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2001), pp 731-742.

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이며 셔츠와 타이로 각기 조합시킨 후 조합된 셔츠와 타이의 배색을 각기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위해 '조화되는-조화되지않는' 과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고 오른쪽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 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 남여 대학생 각 240명씩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5월~9월초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조화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 검증)을 하였다. 또 그룹간 차이를 보기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셔츠색(2)과 타이색(6)을 조합시킨 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이 되도록 조작한 48개의 톤 인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는 다음과 같다.

비비드톤 셔츠와 타이의 조합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보면 남녀 대학생 모두 빨강셔츠와 주황타이의 조합이 가장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색을 보면 빨강셔츠와 초록타이의 조합에서 남녀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또 파랑셔츠와 보라타이의 배색에서도 여자는 조화되는 것으로, 남자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톤의 셔츠와 타이의 조합에서는 남녀 모두 빨강셔츠와 주황 또는 노랑타이의 배색, 파랑셔츠와 노랑타이의 배색이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파랑셔츠와 초록타이의 조합에서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톤의 셔츠와 타이의 조합에서는 빨강셔츠와 주황, 파랑 또는 보라타이의 배색과 파랑셔츠와 노랑 또는 초록타이의 배색이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남녀간에 공통된 반응을 보였으나 파랑셔츠와 파랑타이의 배색에서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크톤의 셔츠와 타이의 조합을 보면 남자는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톤조합이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여자는 빨강셔츠와 파랑타이, 파랑셔츠와 초록, 파랑, 보라 타이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배색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4가지 톤 중에서 가장 조화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셔츠와 노랑타이의 조합을 남녀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여자가 더 강한 반응을 보여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남녀 대학생에게 셔츠와 타이의 톤 인 톤 배색의 조화감을 평가하게 한 결과 조화 또는 부조화라고 지각하는 배색이 구분됨으로써 배색의 조화정도는 구성색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된다는 Granger²⁾의 견해를 지지했으며 톤 인 톤 배색에서 면적이 넓은 셔츠보다

2) Granger, G W,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mony," *J. gen Psychol* 52 (1955), pp 213-222

작은 부분이지만 타이의 색상이 조화감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복에 있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얼굴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가 면적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안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 -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6권 3/4호.
- 강경자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 -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8권 7호.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권 3호.
- 조필교, 정혜만 공저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4권 6호.
- Granger G. W. (1955).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mony." *J. gen Psychol* 52.